

농가 소득 향상, 해답은 '차별화된 아이디어'

코로나19 여파에도 틈틈이 뛰는 아이디어로 농산물 가공 제품을 만들어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태백 감자, 장수 사과, 성주 참외처럼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표고·목이버섯 같이 가공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을 이용해 차별화된 이색제품을 만들어 소득 증대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산물 가공제품의 디자인 개선, 판로 확보, 홍보기획 활동 등을 지원하는 '농가형 가공식품 마케팅기술 지원사업'이 농가소득 향상의 발판이 되어 지난해 참여 농가의 평균 매출액이 1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에는 지난해 8개 시·군 156개 농가가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사태에도 참여 농가의 평균 매출

장수 '사과정과' 등 농산물 가공제품 만들어

코로나19 여파에도 소득 올리는 농가들 '눈길'

농진청, 판촉 기술 지원 작년 평균 매출액 15.7% ↑

액이 2019년 1억 원에서 2020년 1억 1,600만원으로 1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촉기술 지원사업과 함께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 설치 지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과 농업인의 창업에 돕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도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가공·창업 및 판촉 기술 지원을 발판 삼아 코로나19 사태에도 매출이 증가한 농가들이 생기면서

농업에 희망을 주고 있다.

강원 태백의 태백산채마을농업회사법인인 밀가루 대신 감자전분을 이용해 감자 안에 치즈를 넣어 만든 '감자치즈볼'과 쫄면 감자떡 안에 부드러운 감자불을 넣어 만든 '갈감자떡' 등을 개발·판매해 지난해 2억 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9년 매출액 1억 6,000만원보다 37% 증가한 액수다.

전남 강진의 믿음영농조합법인은 유기농으로 재배한 버섯을 원료로 지방 함량은 내리고 바삭함은 높이

는 저온 진공 튀김 방식으로 튀긴 '버섯칩' 등을 만들어 판매해 전년 매출액 8억 8,600만원보다 13% 늘어난 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경북 성주의 참샘영농조합법인은 과자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바닐라 또는 레몬을 참외로 바꿔 참외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참외구움과자'를 비롯해 '참외칩', '참외청' 등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24억원으로, 전년 매출액 22억원보다 9% 증가했다.

전북 장수의 한비존한과업체는 주로 인삼이나 도라지 등으로 만드는 정과를 사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특히 '사과정과'는 기존 정과의 딱딱하고 끈적한 식감을 개선해 부드럽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매출액은 4억 2,000만원으로, 전년 매출액 4억원보다 5%

늘어났다.

경기 용인의 새임농장은 절임용 목이버섯 재배기술을 이용해 만든 켈리 같은 식감의 '목이버섯피클'과 주를 개발해 판매 중이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급식 판매 감소로 전년과 같은 1억 5,000만원을 기록했지만, 가공 분야 매출액은 인터넷 판매가 크게 늘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나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과 박정화 과장은 "앞으로 농가에서 틈틈이 뛰는 농산물 가공제품이 더 많이 생산·판매될 수 있도록 가공에서부터 창업과 판촉에 이르기까지 현장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관심 있으시다면?

참여 소공인 26일까지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공방'은 10인 미만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단계 스마트기술(기기 자동화, IoT, AI 등)을 접목, 데이터를 활용해 소공인의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토록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뉴딜사업에 반영된 스마트공방 기술을 시범선정(40억원, 82개사)했으며, 올해는 전국 600개사 내외 소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4,900만원(국비 70%)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에서는 '광역정장비 및 고효율 LED' 개발 업체인 비케이시와 총기 관련 정밀부품 생산업체인 인코테크가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된 업체에 스마트공방 구축 비용 지원,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과제계획, 스마트 역량교육 등 소공인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필수과정을 묶은 지원해 소공인의 스마트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3개사 이상의 소공인이 협업체 공동생산,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컨소시엄형 스마트공방', 신제품 개발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제품·기술혁신형 스마트공방' 과제를 추가하는 등 지원유형을 다양화 했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공인의 산업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을 2025년까지 1만 개사 이상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한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은 오는 26일까지(오후 6시 마감) 사업계획서를 온라인(e나라도움 홈페이지: www.gsisms.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연구진은 기초의학연구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제11회 노벨상을 꿈꾸는 임상 의사 양성 프로그램'을 성료했다고 3일 밝혔다.

기초의학연구 경쟁력 갖춘 의사 양성

전북대병원 '노벨상을 꿈꾸는 임상 의사 양성 프로그램' 성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기초의학연구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제11회 노벨상을 꿈꾸는 임상 의사 양성 프로그램'을 성료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권역 호흡기전문질환센터에서 2010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전국 의과대학(의예과 포함) 또는 의과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학과 기초과학을 접목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의학연구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의 의과대학 및 의과전문대학원에서 약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인재양성프로그램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기초 및 임상연구 ▲SCI논문작성 ▲임상진료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제11기 수료자로 전북대학교 의학과 맹지인 학생(본과 1학년), 전남대학교 의학과 이지희 학생(본과 2

학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성공리에 수료했다.

특히 제11기 교육생들은 "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막막했으나, 4주 동안 각 진료과별(호흡기알레르기내과·병리학과·영상의학과·흉부외과) 교육 및 프로그램으로 임상연구 및 논문작성 등 향후 의료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의학적인 지식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기숙사 제공 등 다양한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전북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용철교수 연구팀은 관련분야의 월등한 연구 실적을 인정받아 국가지정연구실 사업, 병원특성화 연구센터, 호흡기약물 특화 임상시험센터 및 국내 최초의 호흡기전문질환센터 등 대규모국가 주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 및 수행해왔고, 호흡기계 전임상 연구 및 진료에 있어 국내 최고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전북농협, 자영업자 돕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 조성"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3일 밝혔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란 평소 이



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용하는 식당, 카페 등의 소상공인 업소에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소비가 운동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북농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경진원, 11기 창업팀 모집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1기 창업팀을 모집한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해 창업활동을 지원하고(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북도에서는 경진원에서 운영하며,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지역 내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고 있다.

올해는 총 45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29팀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했던 팀을 대상으로 한 재도전 10팀 등 총 33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경진원은 선발된 창업팀에 창업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창업공간 제공, 사업화개발비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지원, 교육, 멘토링, 자원연계 등을 통해(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목표로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한다. /김윤상 기자

"노란우산 공제금 찾아가세요"

중기중앙회, 미수령 가입자 대상 수령 적극 안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공제금 수령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매월마다 노란우산 가입자의 폐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금 수령을 독려하고 있다. 폐업 후 공제금 미신청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우편·문자메시지·이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별도의 전용 콜센터(1666-9084)를 통한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2007년 노란우산 출범 후 2020년 말 현재까지 38만 8,829명에게 총 2조 8,949억원의 폐업 공제금을 지급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분증과 세무서 발급 폐업사실증명원을 지참해 중기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홈페이지

(www.8899.or.kr) 및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폐업을 했지만 새롭게 사업을 개시했다면 폐업 후 1년 6개월 내에 '통산 신청'을 통해 기존 노란우산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노란우산 가입자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복리 이자가 적용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제금에 법에 의해 압류·담보 등이 금지돼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 받아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제금 찾아가주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666-9088)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한농대, 신입생들에

입학 환영 꽃다발 선물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조재호, 이하 한농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졸업식·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2021학년도 신입생(5,700명)에게 입학 환영 꽃다발을 선물한다.

한농대는 지난달 28일 졸업생 화훼 농가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생화를 반건조한 프리저브드 꽃다발을 입학 축하 서한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신입생 자택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꽃다발 선물은 비대면 졸업식과 입학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고 비대면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추진됐다.

한농대는 앞으로도 화훼농가에서 생산한 장미, 백합, 카네이션 등 다양한 꽃을 연중 구매해 대학 캠퍼스 내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원-테이블 원-플라워, 직원 생일 및 졸업·입학 직원 자녀 꽃다발 선물 등 생활속 화훼류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